



“감독니~임” 10일 오후 대구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2013 현대오일뱅크 K리그 클래식' 대구FC와 전남 드래곤즈 경기 후반전에서 전남 전현철이 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샷원킬’ 전남 전현철 천금의 동점골



한 골 뒤진 상태서 후반 24분 코너 퇴장
10명이 싸우고도 대구 원정서 1-1 비김

전남 드래곤즈가 수적 열세를 딛고 승점 1점을 얻었다.

전남 드래곤즈가 10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2라운드 대구 FC와의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제주와의 개막전에 이어 승리를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수적 열세 속에 얻은 귀중한 승점이다.

대구의 안방을 찾은 전남은 전반 38분 황순민의 프리킥으로 선제골을 내주며 0-1로 전반을 마감했다. 공방 전이 전개되면서 후반 24분 코너가 되장을 당하며 전남 수비에 비상이 걸렸다.

전반 36분 홍진기와 교체해 들어갔던 코니는 공을 차내는 과정에서 상

대 공격수를 걷어차면서 레드카드를 받았다. 코니의 퇴장으로 10명의 선수로 싸움을 벌인 전남에게 전현철이 구세주가 됐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디페딩 챔피언’ FC 서울과 5골을 주고받은 대접전 끝에 후반 33분 터진 문상윤의 골로 3-2 역전승을 거뒀다. 인천은 화끈한 골세례와 함께 서울 원정 13경기 무승(5무8패)의 징크스에서도 탈출했다.

수원 삼성은 홈에서 치른 첫 경기에서 전반 11분 터진 주장 김두현의 골로 강원 FC를 1-0으로 꺾었다.

제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 유나이티드와 삼남 일화의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다.

이날 승리로 경남은 부산전 4경기

연속 무실점과 함께 무패(3승1무) 기록을 이어갔다.

9일 경기에서는 전북 현대가 홈 막전에서 ‘아시아 챔피언’ 윤선 현대를 2-1로 꺾었다. 팀의 승리를 지킨 베테랑 골키퍼 최은성은 통산 3호 500경기 출전기록을 세웠다.

전남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남은 시간을 실점 없이 막아내면서 승리 같은 무승부를 장착했다.

경남 FC는 ‘천적’ 부산 아이파크와의 홈경기에서 이재안의 결승골을 앞세워 1-0, 시즌 첫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경남은 부산전 4경기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3 K리그 연감 발간



K리그 역사가 총망라된 '2013 K리그 연감'이 발간됐다. 이번에 발간된 2013 K리그 연감은 ▲구단별 2012 기록 ▲2012년 팀별·선수별 기록 ▲1983-2012 통산 경기기록 ▲2012 각종 대회 경기기록부 ▲시즌별 기타 기록으로 셀렉션에 나눠져 있다.

16개 구단의 연혁과 팀별 선수명단, 대회별 경기기록부를 지난 시즌 팀별 관중수·현황 및 신인선수 지명 현황 등이 담겨있다. K리그 연감은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며, 판매가격은 2만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또 한 타차… 박인비 ‘눈물’

미션힐스 챔피언십

페테르센에 역전패

지난해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상금왕인 박인비(25)가 2013 시즌 두 번째 우승을 눈앞에 두고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박인비는 10일 중앙 하이난성 하이커우의 미션힐스 골프장(파72)에서 열린 유럽 여자 프로골프투어(LET) 미션힐스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묶어 3언더파 69타를 쳐냈다. 최종합계 17언더파 271타를 기록한 박인비는 수잔 페테르센(노르웨이 18언더파 270타)에 한타 뒤진 준

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페테르센은 4라운드에서 버디만 6개를 쓸어담으면서 역전 우승을 차지했다.

박인비는 3라운드까지 2타차 단독 선두를 달리며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혼다 타일랜드 대회 이후 2주만에 정상을 노렸으나 뒷심이 부족했다.

이날 박인비는 2번홀(파4)부터 보기를 써내며 주춤했다. 그 사이 페테르센은 2~4번홀에서 줌버디를 낚아 선두로 뛰어올랐다. 박인비가 8번(파5), 10번(파4)홀의 버디로 반격을 시도했지만 페테르센도 지지 않고 버디로 응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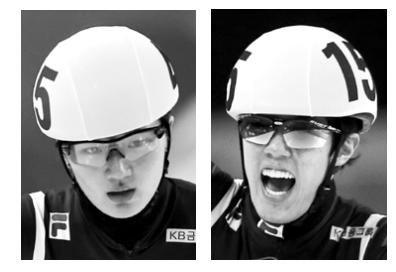
이어 11~12번홀에서 박인비는 연속 버디로 어렵사리 균형을 맞췄으

나, 페테르센은 바로 다음 홀(파4)에서 한 타를 줄여 앞서나갔다.

15번홀(파4)에서 박인비가 보기를 적어내면서 두 선수의 격차는 2타로 벌어졌다. 박인비는 마지막 홀(파5)에서 한 타를 만회하는 데 그쳐 결국 우승트로피를 넘겨줬다.

하지만 박인비는 단체전에서 김하늘(24·KT·100타·289타)의 성적과 합산한 결과로 1위(560타)에 올라 개인전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씻었다. 양수진(22·정관장)은 마지막 날 이 블록과 기록, 서보미(32)와 공동 4위(10언더파 278타)에 올랐다. ‘슈퍼 투’ 김효주(18·롯데)는 최종합계 7언더파 281타로 공동 8위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박승희·신다운 금메달

쇼트트랙 세계선수권

한국 쇼트트랙이 2013 국제 빙상경기연맹(ISU) 세계 선수권대회 남녀 1500m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여자 대표팀의 박승희(21·화성시청)와 신석희(16·오륜중)는 지난 8일 현지시간(한국 현지시간) 평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대회 첫날 여자 1500m 결승에서 각각 2분23초36, 2분23초755의 기록으로 금,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대표팀에서는 신다운(20·서울시청)이 남자 1500m 결승에서 2분27초062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센트럴 박’ 퀸스파크의 중심

박지성 풀타임 맹활약

QPR 첫 2연승 이끌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퀸스파크 린저이스(QPR)에서 벤치신세로 전락하는 듯하던 박지성(32)이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핵심 카드로 부상했다.

이날 박지성은 지난 9일 선덜랜드와의

29라운드 홈경기에서 수비형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90분을 모두 뛰었다. 지난 경기에 이어 2번째 폴타임 활약이었다. 박지성은 1월 정규리그 경기에서 후반전 막판에서 교체 투입과 10여 분도 경기장을 뜯어낸 후 2번의 경기장을 뜯어낸 후 2번의 경기장을 뜯어냈다.

박지성은 지난 9일 선덜랜드와의

29라운드 홈경기에서 수비형 중앙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해 90분을 모두 뛰었다. 지난 경기에 이어 2번째 폴타임 활약이었다. 박지성은 1월 정규리그 경기에서 후반전 막판에서 교체 투입과 10여 분도 경기장을 뜯어낸 후 2번의 경기장을 뜯어냈다.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

QPR 첫 2연승을 이끌어

박지성은 2013년 1월 29일(일) 열린</p